

《靑丘圖》와 《東輿圖》의 제작 과정과 지도적 특징에 관한 연구

李 起 鳳

서울대 규장각 책임연구원

I. 머리말

김정호에 대한 연구 성과는 대한지리학회에서 주관하여 연구·정리하고 국립지리원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자료집」과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이 자료집을 보면 고산자 김정호에 대한 연구의 주 흐름은 생애, 지도, 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지도 특히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동여지도》가 가장 잘 알려져 있었으며, 김정호의 일생에 걸친 연구가 이 지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 대한 지나친 연구의 편중은 최소한 1980년대까지 김정호의 지도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첫째, 《대동여지도》를 《청구도》→《동여도》→《대동여지도》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지도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대동여지도》를 조선에서의 정확한 지도와 지지에 대한 성과의 결집보다는 김정호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1990년대에 들어 규장각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지도가 소개·연구되면서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김정호의 지도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김정호가 기존 고지도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청구도》와 《동여도》를 만들어 내게 되었는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청구도》와 《동여도》에 표현된 한반도 전체의 윤곽, 지도의 구성 체계, 각 군현 사이의 경계, 수록된 정보의 양과 종류 등 내용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내용들이 기존의 어떤 고지도로부터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것을 새롭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구도〉의 底本에 대한 추정

1. 선행연구의 정리

이상태: 「한국의 고지도 발달사」(혜안, 1999, 215-216쪽) ⇒ 〈청구도〉가 정조 1년(1776)부터 11년(1787) 사이에 만들어진 방안식 전국 군현지도집인 《海東輿地圖》와 내용 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본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양보경: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書誌學研究』 17, 1999, 421-436쪽) ⇒ 1800-182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이 거의 유사한 일본 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된 〈조선도〉를 소개하면서 이 지도가 〈청구도〉 제작의 기반이 된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상학: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국립지리원, 2001.12, 44-46쪽) ⇒ 〈청구도〉와 《해동여지도》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양보경이 소개한 〈조선도〉와 같은 대형 전도를 바탕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2. 靑丘圖題와 靑丘圖凡例에 대한 검토

“오랫동안 전해진 것은 오직 輿地勝覽 弁卷(各 卷首)의 八道圖本뿐이지만, 질박하고 소략하여 겨우 그 범위를 갖추었을 따름이다. 正廟朝에 여러 州郡에 명하여 해당 地方을 그려서 진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經緯線表를 두었는데 혹은 八道로 分幅하고 혹은 州縣으로 나누어 뜻에 따라 만들었다. (그 중에서) 鄭喆祚·黃燁·尹鏞의 圖本이 가장 우수했다. 대개 종이의 크기는 한정이 있어서 道本 전폭 안에 坊面과 分界線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 상세함을 다할 수 없었다. 州縣의 各本은 땅의 濶狹長短을 막론하고 반드시 一版 안에 배치하게 되어 經緯線이 절로 드물거나 촘촘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계를 살핌에 이르러서는 찾아 밝히기가 어려워 管窺의 폐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폭의 全圖로서 層版을 정하여 고기비늘처럼 순서를 매겨 卷을 만들었으니 거의 두 가지 문제점이 없게 되었다. 地志에 실린 바의 예전에 修撰한 지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靑丘圖凡例)”

“벗 김정호는 나이가 童冠일 때부터 圖志에 깊이 뜻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 열람하여, 여러 방법의 長短을 자세히 살폈다. 매번 한가한 때를 만나 확론을 얻어 보고, 式簡을 건주어 보니 곧 方輿를 그려 넣음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자르고 산을 끊었으며, 여러 고을을 흠어 놓아 진실로 表를 보고 경계를 살피기가 어려웠다.[위의 두 구절은 流傳하는 지도의 폐단을 밝힌 것이다. 한 장 내에 卍數에 따라 가로 세로의 井間을 그리고 물줄기와 산줄기를 그 위에 더하였다. 이것이 곧 물을 자르고 산을 끊는다는 것이다. 334개의 州縣을 각각 1폭에 그렸기 때문에 小縣은 넓어지고, 大邑은 도리어 축소되었다. 그 表에 따라 경계를 살핌에 이르러서는 卜을 건주어 尺을 헤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

서 항상 문란함이 많았다.] 이에 全幅을 구역에 따라 나눈 것은 神禹가 井田을 구획한 것을 본받은 것이고, 가장 자리의 선에 글을 쓴 것은 卍代에 曆算을 표시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靑丘圖題)”

앞의 예문에서 지적한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호는 《청구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역으로 김정호가 《청구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의 특징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호가 《청구도》를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던 지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 첫째, 山水와 같은 지도의 내용 위에도 방안이 그려져 있는 지도였다. 둘째, 모든 고을 간의 경계선이 직접적으로 맞닿게 그려져 있는 지도는 아니었다. 셋째,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그렸기 때문에 방안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 군현지도였다. 넷째, 경계선을 서로 비교해 보려면 서로 다른 방안 크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군현지도였다.

III. 《청구도》 이전 방안식 군현지도와 그 특징

1. 《備邊司地圖》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 지도들은 영조 23년(1747)에서 26년(1750)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備邊司’라는 印章이 찍혀 있어 일괄적으로 《備邊司地圖》로 소개되어 있다. 이들 지도집에 그려져 있는 각 지도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의 크기, 제작 기법, 수록된 내용의 통일성은 기본적으로 전국이 아니라 도별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 둘째, 각 고을 지도의 윤곽은 인접한 군현 사이의 경계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전라도·경상도·충청도 등은 방안이 그려져 있지만 함경도 전체와 황해도 일부는 방안이 그려져 있지 않다. 넷째, 1리 방안으로 그려졌지만 도별로, 그리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방안의 크기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방안을 그린 후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방안이 산천 등을 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 《朝鮮地圖》

규장각 소장의 《조선지도》 7책에는 1767년이나 1768년경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집이 그 이전과 이후의 지도에 비해 갖고 있는 내용적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모든 고을을 4.2cm 정도의 동일한 20리 方眼 위에 그렸다. 둘째, 고을마다 50cm×38cm 정도의 지도책 안에 독립적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셋째, 각 고을 내부에는 방안이 그려져 있지 않으며, 방안은 고을 외부에만 그려져 있다. 넷째, 각 고을의 경계선과 越境地, 산줄기, 물줄기, 도로

등을 인접 고을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렸다. 다섯째, 동일한 정보는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는 범례를 전국의 모든 고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여섯째, 각 고을별로 수록된 정보의 종류가 거의 동일하다. 위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이 지도집 자체, 모사했다라도 그 원본은 영조 46년(1770)에 신경준의 주도로 만들어진 列邑圖 8권으로 추정된다.

3. 《해동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여지도》 3책은 각 고을의 경계선과 한반도 전체의 윤곽, 수록된 정보의 양과 종류 및 위치, 20리 방안의 사용 등 《조선지도》와 거의 동일하여 모사본으로 볼 수 있다. 수록된 지명을 통해 볼 때 이 지도집은 1776년과 178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지도》와 다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道의 지도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經緯全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경선과 위선에 번호가 붙어 있다. 둘째, 20리 방안의 크기가 지도책 전체에 동일하지 않으며, 《조선지도》와 달리 동일한 크기의 지면에 1-4개의 고을을 함께 수록하였다. 셋째, 방안이 지도의 내용 위에 그려져 있다는 점도 《조선지도》와 다른 점이다. 넷째, 《조선지도》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범례가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이 약화되었다. 다섯째, 수록된 정보의 양과 위치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조선지도》를 따르고 있지만 일부 변화된 부분도 있다.(예: 경기도 남양의 分鄕面, 경상도의 경상) 여섯째, 《조선지도》에는 없는 각 고을의 간략한 地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다.

IV. 《청구도》의 제작과 특징

1. 방안식 군현지도와 《청구도》의 관계

첫째, 한반도 전체의 모습이 《청구도》와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 사이에 거의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 폐사군 지역, 함경도 원산만 지역, 강원도 고성 지역) 둘째, 각 고을 경계선이 《청구도》와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 사이에 거의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 충청도 해미와 충주-진천-안성의 경계선, 경기도 남양의 분향면) 셋째, 수록된 지명이 《청구도》와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 사이에 거의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 해미의 경우 동일, 토산의 경우 1개의 차이밖에 나지 않음.) 《청구도》는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 중 후자의 것과 훨씬 유사하다.(대표적인 예: 경상도 경산은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 사이에 다른 지역인데 《청구도》는 《해동여지도》와 거의 동일) 넷째, 조선(한반도)의 남북과 동서의 길이가 《청구도》와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 사이에 거의 동일하다. 다섯째, 청구도범례와 청구도제에서 언급한 방안

의 모습이 《해동여지도》와 동일하다.

2. 《청구도》의 독창적 특징

첫째, 索引圖의 역할을 하는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이 수록되어 있다. 청구도제와 청구도범례에는 기존의 지도에서 ‘表를 살펴 경계를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동여지도》의 經緯全圖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지도의 구성 방법이 ① 각 고을을 모두 연결시켜 그리고 ② 세로 100리 가로 70리를 한 면으로 나누어 가로 22판, 동서 29층으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③ 각 면의 위와 왼쪽 또는 오른쪽에 10리의 방안을 표시했을 뿐 지도 위에는 방안을 그리지 않았다. 청구도범례와 청구도제에서 기록한 기존 지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내용과 일치한다. 셋째, 都城全圖가 독립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넷째, 통치·역사·자연에 관한 지지적 정보가 지도 위뿐만 아니라 부록으로도 정리되어 있다. 다섯째, 범례가 기존의 방안식 군현지도보다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군현을 연결시켜 그리기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되어 있다. 여섯째, 지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地圖式을 청구도범례에 실고 있다.

V. 《동여도》의 제작과 특징

1. 《동여도》의 제작 시기

이상태는 앞의 책에서 《동여도》의 제13층 여백란에 표기되어 있는 仁陵의 위치인 獻陵右岡이 철종 7년(1856) 2월에 교하현에서 옮겨왔다는 점 등 몇 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대동여지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양보경은 앞의 논문에서 규장각 소장인 《동여도》가 1872년경에 《대동여지도》를 기초로 하여 모사한 지도로 추정하였다. 오상학도 앞의 논문에서 《동여도》 제작에 도움을 준 신현의 오랜 유배생활, 목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대동여지도》보다 늦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동여도》의 제6층 9면에 나오는 長津의 왼쪽 부분에 ‘今降嶺’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장진부는 현종 9년(1843)에 嶺으로 강등되었다가 철종 10년(1859)에 다시 부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현릉우강이 보여주는 1856년 2월 이후라는 시기와 연결시킨다면 《동여도》는 1856년과 1859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 『東輿圖志』 황해도와 강원도 부분의 군현지도

최소한 1851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 대영도서관에서 발견된 『동여도지』의 황

해도와 강원도에는 군현지도가 실려 있다. 이 지도들은 《동여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김정호가 신헌(1810-1888)의 도움으로 알게 된 비변사와 규장각 소장의 새로운 지도를 보면서 《청구도》를 어떻게 교정시켜 나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동여도지』 황해도 의 〈兎山全圖〉를 《청구도》, 방안식 군현지도인 《조선지도》 및 《해동여지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는 점이 《청구도》와 다르며 표현 양식이 《해동여지도》 보다는 《조선지도》와 거의 동일하여 서로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해동여지도》와 《조선지도》의 내용이 교정되고 있다. ① 東西南北과 乾坤巽艮 등의 8개 방향이 표시되어 있다. ② 전자가 후자보다 산줄기와 물줄기, 특히 산줄기가 훨씬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③ 坊面과 일부 지명의 위치가 약간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며 거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④ 방안이 10리로 되어 있다. ⑤ 일부 지명이 첨가되어 있다. ⑥ 도로가 더 자세해지고 굴곡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동여도지』 황해도 〈토산전도〉가 앞의 지도들을 중요한 저본으로 삼았지만 상당한 변형과 첨가를 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과 첨가는 청구도법례에 나오는 지도에 대한 많은 연구, 『東輿圖志』와 『輿圖備志』 등의 제작에서 나타난 다양한 지지의 종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도》에서 《동여도》로의 변화

《청구도》에서 《동여도》로 변화되는 과정에 『동여도지』의 군현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여도》는 『동여도지』의 군현지도와 다른 특징도 보이고 있다. 김정호는 자신이 그린 기존 지도를 참고하면서도 새로운 구상 하에 《동여도》를 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동여도》가 기존 지도와 다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의 성격을 가미한 《청구도》와 달리 순수하게 지도의 성격이 강조된 지도이다. 이것은 『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지』와 같은 지지서를 편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해안선과 하천의 유로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이것은 《동여도》의 제작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1861년에 목판의 《대동여지도》가 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조선(한반도)의 동서와 남북 폭은 《청구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지도 1면의 크기가 가로 70리 세로 100리에서 가로 80리 세로 120리로 변화한다. 넷째, 조선 전체의 윤곽 역시 《청구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변형이 가해진다.(대표적인 예: 함경도의 명천, 강원도의 흠곡과 통천 및 울진의 해안선 등) 다섯째, 산줄기식으로 그렸으며 《조선지도》나 《해동여지도》보다 훨씬 자세해지고 있다. 이것은 지지에 대한 편찬 작업 과정을 통해 산지와 하천에 대한 정보가 훨씬 자세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청구도》보다 《동여도》의 산지나 하천에 대한 지명이 훨씬 많다. 여섯째, 동일한 정보에 대한 기호를 특별히 정리해 놓았으며, 그 이전의 지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地圖標(법례)가 있다. 이것은 이 지도가 순수하게 지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목판본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都城全圖〉와 〈京兆五部圖〉가 독립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덟째, 많은 지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2개의 지지서가 편찬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는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방안식 군현지도집인 〈조선지도〉와 〈해동여지도〉 등을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아 제작되었다. 그러나 김정호의 지도들은 이러한 지도를 그대로 모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 이전의 지도와 지지에 대한 김정호의 철저한 비교·검토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개선되는 과정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결국 김정호의 지도들은 18세기까지 이루어진 조선의 지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김정호 자신의 천재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지도라고 보아야 한다.